

■ 책을 읽고 ■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400pp.

권은혜

콜롬비아 대학교의 사학과 및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의 교수인 매이 나이(Mae M. Ngai)는 2004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불가능한 주체들: 불법 외국인과 근대 미국의 형성』에서, 현재 미국 역사상 공개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던 1924년과 1965년 사이의 시기를 검토한다. 이민 제한의 과정이 “불법 외국인(the illegal alien)”을 탄생시키고 이들의 시민권 접근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나이는 근대 미국의 이민법이 불법 외국인을 “불가능한 주체(impossible subject),” 즉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4-5). 1924년과 1965년 사이의 이민제한 시기를 미국 이민 역사상 예외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나이는 기존의 학계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기존의 미국 이민사 학계는 1924년 이전의 유럽 이민현상과 1965년 이후의 소위 제 3세계로부터 이민 증가 현상을 주로 다루면서, 이민제한의 시기를 이민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 나이는 1924년 이민법이 확립한 이민제한의 원칙이 1965년 이후에도 지속됨을 지적한다. 소위 자유주의적 이민 개혁이라 불리던 1965년 이민법에 따라 민족적 기원에 따른 이민할당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이민법이 수치상 제한의 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적 제한이 없는 이민을 공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이민 제한 시기가 남긴 유산이라는 것이다.

『불가능한 주체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두

장은 1924년의 이민법과 1930년대 이후의 국경통제 및 추방정책이 미국 시민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민자와 그럴 수 없는 이민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다룬다. 1924년의 이민법은 인종적 구분에 따른 이민 선호와 제한의 원칙— 북서유럽국가로부터의 이민 선호와 “미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써 아시아계 이민의 배제—과, 수치상의 제한 원칙— “민족적 기원(national origin)”에 따른 이민할당제와 연차 최대 이민할당제—을 확립했다. 인종적 구분과 이민할당의 원칙을 채택한 이민 제한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정부는 불법 이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추방과 국경 통제 정책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 그리고 멕시코인 불법 이민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법과 민족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주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 번째 부분에서 나이는 “인종화된 외국인 노동— 필리핀 노동자들과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 서부와 남서부의 정치, 문화,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다룬다. 나이는 대량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미국 서부와 남서부의 산업적 농업이 “정치체의 외부에 이주 농업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수입된 식민주의’를 실행”했다고 주장한다(13). 이민 제한 시기의 이민 정책은 특정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을 미국의 영토 내부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시민권에는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주체로 종속시켰다.

<전쟁, 민족주의, 외국인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부분은 2차 대전시기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과 함께, 냉전시기 허위서류로 거주하고 있던 중국계 미국인들로 하여금 불법체류 상태를 자백하게 만들었던 정책을 검토한다. 이 부분에서 나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시민적 지위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밝힌다. 미국에서 태어나 태생적으로 미국 시민이었던 8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의 시민적 권리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으로 시작된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정책에 의해 일단 정지되었다. 수용소에서 이들은 미국 정부에의 충성을 확인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1950년대에 중국계 미국인 중 최소한 25퍼센트는 중국계 이민

제한 시기인 1882년에서 1943년까지 중국계 미국시민의 소위 “서류상 아들(paper son)” 상태로 미국에서 입국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중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설립되자, 1950년대 이민국은 “서류상 아들”들이 불법적 체류 사실을 고백할 경우 그 지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어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나이는 아시아계 이민 제한의 시기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시민권문제는 “강압적인 동화와 민족주의라는 조건 속에서만 해결”되는 “용광로”였다고 주장한다(13).

마지막 부분인 <2차 대전 이후 이민개혁에서의 다원주의와 민족주의>는 2차 대전 종전부터 1965년까지의 이민정책 개혁운동을 분석한다. 여기서 나이는 2차 대전 이후 이민개혁이 “어떻게 이민제한정책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유지하기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13).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1965년의 이민법은 “2차 대전 이후의 지리경제적이고 경제적인 민족주의라는 맥락에서 다원주의적 정치를 위치시킨 자유주의적 개혁”이다(13-14). 기존의 견해와 달리 나이의 관심사는 1965년의 이민개혁이 어떻게 “불법이민을— 보다 고도의 수준에서 —재생산 하였는가”, 그리고 “20세기 말을 거쳐 21세기에 이르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불법이민을 주요 문제로 선점 하였는가”이다(14).

나이는 이민과 불법 이민의 문제가 근대 민족국가의 시민권을 사유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날카로운 이론적 통찰과 꼼꼼한 법적 담론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주자, 국가,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 갈등, 협상”은 “민족을 정의 및 재정의 하는 역사적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고 주장하면서, 나이는 이민자들이 “민족의 외부에 있지 않다”고 결론짓는다(14). 나이의 연구는 이민과 시민의 경계, 그리고 민족국가의 영토적 경계와 시민권의 경계는 사실상 모호하고 유연했음을 보여준다. 이민제한시기의 이민정책은 불법 외국인이라는 범주를 구성함으로써 민족국가와 시민권의 모호한 경계들을 명백하게 만들려 했다. 20세기 전반기 이민제한정책처럼 21세기 국가들의 이민정책도 불법이민의 문제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가리고 있는 것은 민족국가의 영토성과 시민권의 경계라는 문제이다.